

<1월 30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 불자님과 함께하는 찬불가 연습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법문 - <관음경>,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김호성
- 음성공양 - 신도회 합창단
- 정근
- 사홍서원

<초청강좌 안내>

날짜	주제	법사
2. 6(토)	휴 회 (개인정진)	
2. 13(토)	정초 관음기도	교법사 진우스님
2. 20(토)	한글과 경전번역	김무봉 교수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법학관 B259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법학관 B260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 공지합니다! 교리반, 漢詩반 강의실 변경되었습니다. 방학기간(1월 9일~2월 27일)중 법학관으로 변경, 3월부터는 기존 명진관 강의실에서 다시 진행됩니다.



정각원 부처님께 공양미 올리세요!
보시금은 **1만원**입니다. <정각원 신도회>

丙申年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1년 5만원 <토요 사시기도에 축원해 드립니다>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崇政殿 현판 전시 안내

정각원 내부에 모셔진 송정전 현판이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경희궁'>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희궁의 창건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경희궁의 흩어진 부재들의 흔적 찾기를 통해 궁으로서의 위상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니 많은 관람바랍니다.

- * 기 간 ~ 2016년 3월 13일(일)
- * 장 소 종로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 * 문 의 02)724-0274~6

보시동참

☞ 1월 25일 불전 공양 ☞

₩883,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해주스님, 진우스님, 김문자, 김봉주, 고목훈, 구리시효자 봉비어, 권복숙, 권혁채, 김기현, 김동연, 김인철, 남대문 효자손만두, 남창강, 도윤수, 박선재, 박성진, 박세협, 박정훈, 백광호, 윤병남, 윤호문, 이기형, 이동하, 이민기,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인주, 정보현, 정찬혜, 주호빈, 주호성, 최경규, 최선자, 최은진, 하지현, 한상훈,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984,000원

(법사비, 토요일회 녹화영상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공양 ☞

김정수, 박정훈, 박진우, 송유나, 이만용, 이영규, 이영순, 이인주, 이형찬

☞ 공양 보시 ☞

- ❖ 불단 떡 : 조소빈
- ❖ 불단 과일 : 정각원 신도회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정각원에 보시해주신 불전금(연등, 인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정각원 행정팀 2260-3016



정각원 토요법보

信心장한 불자 땀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60(2016)년 1월 30일

제319호(週刊)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이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다. [유마경]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



◎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이 백의관음보살은 원형의 이중광배를 지니고 넘실대는 파도 위에 떠가는 듯 연꽃잎을 타고 서 계십니다. 두 손은 앞으로 모아 서로 교차시키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버들가지를 왼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훔날리는 옷자락의 모습은 주위의 화면 전체에 표현된 파도의 곡선과 더불어 강한 울동감과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각** 보물 제1314호, 성종 7년(1476) 추정,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전

〈관음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김호성

시(詩)로 거듭 관음을 찬탄하다

그때 무진의보살은 시 [偈頌] 로써 (부처님께)
여주었다.

훌륭한 모습을 갖춘 세존Citradhvaja이시여,
제가 이제 거듭 그에 대하여 여주고자 하나이다.
저 보살 [佛子, Jinaputra] 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나이까?

훌륭한 모습을 갖춘 세존께서는 시로써 무진의보살
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은 관세음의 자비[行]에 대하여 잘 들어라.
(관세음의 자비는) 모든 중생들의 상황[方所]에
잘 부응하시느니라.

(관세음의) 큰 서원이 바다와 같이 깊으니
한량없는 세월이 흘러도 다 헤아릴 수 없어라.
수많은 천억의 부처님을 다 모시고서
크고 청정한 서원을 발하였도다.

내 이제 그대를 위하여 간략히 설하노니
(관세음의) 이름을 듣고 (관세음의) 모습을 보고서
마음으로 끊임없이 염한다면
능히 모든 고뇌를 소멸할 수 있으리라.

가령 (누군가가 그대를)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큰 불구덩이에 밀어뜨렸다 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리라.

혹은 용이나 고기나 여러 귀신이 사는
큰 바다에 표류하는 난관에 처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파도에 빠지지 않으리라.

혹은 수미산須彌山, Sumeru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밀어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마치 태양이 허공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되리라.

혹은 악인이 밀어서
금강산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터럭 한 올 해치지 못할 것이다.

혹은 도둑들이 포위하고서
각기 칼을 들고 해하려 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도둑들은) 곧바로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은 정치적으로 어려움[王難]을 당하여
형벌을 받아서 목숨이 끊어지려 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칼은 마디마디 끊어지고 말리라.

혹은 감옥에 갇혀서 칼[枷]이나 족쇄를 차고 있어서
손과 발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곧바로[釋然] (포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주술mantra과 주문vidya, 그리고 여러 가지 독약으로
(그대의) 몸을 해치려는 자가 있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그에 의하여 (그대가) 본래 온 곳으로 가게 되리라.

혹은 악한 나찰과 독룡,
여러 귀신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그때 조금도 감히 해칠 수 없으리라.

예리한 어금니와 발톱을 가진
맹수에 포위되었다 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곧바로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리라.

독의 기운이 맹렬한
독사들에게 포위되었다 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소리에 따라서 (독사들은) 스스로 물러가리라.

검은 구름으로부터 번개가 번쩍이고
벼락이 치고, 폭우가 내리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곧바로 (그것들은) 다 소멸되리라.

한량없는 고통을 당하고
한량없는 고뇌에 쌓이는 중생을
관세음보살께서는 뛰어난 지혜의 힘으로 보시고서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해주시네.

신통력을 갖추시고
널리 지혜와 방편을 닦으시고서
사방세계의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시네.

갖가지의 온갖 악취惡趣
지옥 · 아귀, 그리고 축생들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들은
점차로 모두 소멸해 가리라.

무진의보살의 찬탄

(그때 실로 무진의보살은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러한 시gāthā를 읊었다.)

진실한 눈, 청정한 눈,
광대한 지혜의 눈
연민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지신 분이니)
항상 원하며 항상 우러러 보아야 하리라.

때가 없이 청정한 빛이
지혜의 햇빛이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능히 재앙을 초래하는 바람과 불을 굴복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은) 세간을 두루 밝게 하시네.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계율은 벼락과 같고
자비의 마음은 큰 구름과 같아서
감로의 법우法雨를 내려서
번뇌의 불꽃을 소멸하시네.

싸움하고 소송하는 곳이나
전쟁터에 있어서 두려울 때
저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한다면
모든 해로움이 다 물러나리라.

묘음妙音과 관세음觀世音
범음梵音과 해조음海潮音은
저 세간의 소리보다 훌륭하노니
모름지기 언제나 (관세음보살을) 염할지어다.

한 생각도 의심을 내지 말아라.
관세음보살은 청정한 분suddha-sattva이시니
괴로움, 재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능히 의지처śaraṇa가 되리라.

모든 공덕guṇa을 갖추고
중생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복덕은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해야 하리라.

유통분(流通分)

그때 지지持地, Dharan.im.dhara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말하는 자재한 행위와 널리 시현示現을 나투는 신통력에 대해서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시자, 그 모임에 참여하였던 팔만사천의 중생들이 모두 견줄 데가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켰다.